

수확철 보릿대 처리 놓고 지자체-농민 갈등

농가, 모내기 앞두고 현장 소각 불가피 주장에 군산시 등 연기·미세먼지 배출 단속 민원 난감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수확이 끝난 보릿대 처리 방안을 놓고 농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모내기에 방해가 된다며 현장에서 소각하는 농민들과 달리, 메케한 연기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행위라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치단체 판단이다.

16일 군산시를 비롯한 도내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보리 수확철을 맞아 농촌 들녘의 보릿대 소각 행위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농지에서 보릿대를 태우다 보니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냄새가 진동하는데다, 농업 부산물의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는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빚어지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보릿대를 논밭에서 그대로 태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일선 자치단

체들은 보리 수확철이면 단속반을 운영하며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 등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릿대를 태우면 안 된다"며 홍보도 하고 마을 총회, 반상회를 열어 안내하는 '소각 금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모내기를 할 수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릿대가 역센 탓에 갈아엎은 뒤 모내기를 하면 모가 제대로 활착하지 못한다는 게 농민들 주장이다.

보릿대를 수거하더라도 마땅히 쓸모가 없다는 점도 소각을 부추기고 있다. 보릿대는 벼짚과 달리 소화 효율이 낮아 소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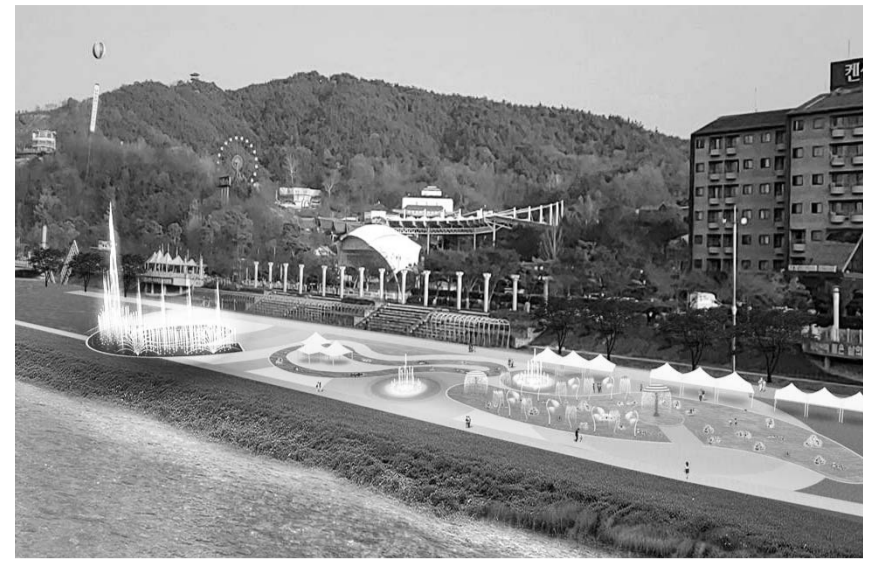
이 등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수거·처리 비용도 적지 않고 보리 수확과 모내기 철이 겹치는 점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릿대를 수거해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 등으로 처리하고 싶어도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자칫 모내기 철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 무작정 단속하기도 난감하고 대책도 없어 아예 소각을 합법화해달라는 건의도 여러 차례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 요천에 대규모 종합물놀이장 만든다 시, 93억 들여 놀장·물썰매장·음악분수 등 설치

남원시 요천 둔치에 대규모 종합 물놀이장(조감도)이 조성된다.

16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요천 둔치 6000㎡에 93억원을 투입, 놀장과 물썰매장, 안마용 폭포수 등의 시설을 갖춘 물놀이장과 광장, 음악분수, 바닥분수 등을 조성하는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수량이 풍부하며 맑고 깨끗한 요천 물을 이용한 물놀이장이 시내권에 위치해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놀이장 인근에는 관광루인, 남원예촌, 항공전문대, 춘향테마파크, 시립 김병중미술관 등이 밀집해있다. 남원시는 물놀이장과 연계, 연간 관광루인을 찾는 100만 여명의 관광객을 시내권 관광으로 유입시키는 데 총력을 쏟는다는 각오다.

남원시는 오는 2021년까지 춘향테마파크-합파우소리체험관-김병중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관광형 모노레일과 남원항공우주전문대-예촌마당-합파우소리체험관으로 도착하는 '짚이어'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광도시로 본격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고창서 '토종범씨 사용 모내기' 행사

헌배·노인도 등 4종 토종범씨 재배 농가소득 향상 기대

토종종자 보호를 위한 '토종 범씨 사용 모내기'가 고창에서 열렸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토종씨앗 연구회는 지난 13일 유기상 고창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성내면 논에서 토종범씨 4종(헌배·노인도·늑두도·졸장)의 모를 심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

토종벼는 일제 강점기까지 1500여종에 달했지만 개량 종자 배포와 1970년대 통일벼 보급 이후 현재는 일부 농업인들

통해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행사는 토종 범씨를 활용한 벼를 재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2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전국 최초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군산시민·예술인 함께 한 '원도심 살리기' 옛 개복동 군산극장 일대 '예술촌' 꾸민다

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눈길

군산의 '원도심 살리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체육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옛 개복동 군산극장 일대를 '군산시민 예술촌'이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하고 예술의 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국·도비 7억여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거리사업'을 추진, 아마추어 동호인 등에게 저렴한 이용료로 창작공간을 빌려주고 전국 버스킹 대회, 청소년 힐링 콘서트, 개복동 거리예술제, 씨네뮤직콘서트, 아트테라토리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매년 한 여름밤에 열리는 '스릴러 페스티벌'의 경우 다양한 공연, 댄스 등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풍물, 생활공예, 도자기 공예, 서예, 하모니카, 시낭송, 요가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어쩌다 예술'이라는 문화예술교육사업도 추진중이다. 1년 간 교육받은 수강생들에게는 연말 발표회를 열도록 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쉽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외 갤러리인 '아트테라토리전'을 조성,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문화공간 '뒤뜰'을 조성해 시민이 제공하고 간단한 공연도 진행한다.

이외 지역문화컨텐츠를 발굴하는 '문화도시고리사업'에 따라 근대사를 지나는 군산 지역의 정통성을 발견하고 지역 주민들의 구술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



군산시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거리예술제.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 제공>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지

속적인 행사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풍년농사 기원 순창 농요 '금과들소리' 재현

고성농요·홍성결성농요 등 영남·충청 전래 농요도 공연

농사일의 고단함을 달래고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부른 농요(農謠)가 순창에서 재현됐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는 16일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에서 금과들소리 공연을 펼쳤다. 금과들소리는 물푸기소리~모심기소리~김매기 소리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또 경남 고성농요, 충

남 홍성결성농요, 임실필봉농악 등 영남과 충청에 전해지는 전래 농요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금과들소리는 2005년 전북도 무형문화재(제32호)로 지정됐다.

이는 500여년 전부터 순창군 금과를 중심으로 계승된 농요로, 곡조가 다채롭고 음계와 선법이 판소리와 유사하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군산 1·2국가산단에 근로자 위한 복합문화센터 만든다

군산 1·2 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를 위한 문화, 체육, 복지, 편의 기능이 집적한 문화센터가 생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1·2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3층(연면적 3260㎡) 규모로 산업단지 내 청년 유입 강화와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시

설이 일주한다.

1층에는 민원센터, 기업지원센터, 보건지소, 다목적 공연·전시실을 갖추고 2층은 작은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카페테리아 등으로 꾸며지고 3층에는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등이 마련된다.

센터는 근로 및 복지환경 개선, 문화사업 지원, 평생학습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등도 맡는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